

남해도의 지역지리*

기근도**

The Regional Geography of Namhae Island*

Keun Doh Kee**

요약 : 남해도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이다. 섬이란 원래 육지와 바다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남아 있는 곳이다. 남해도가 규모가 큰 섬이기 때문에 다른 작은 섬에 비해서는 자족력이 높겠지만, 산지가 대부분이어서 정주하기에는 불리한 공간이다. 이러한 지역성을 지닌 남해도는 남해대교나 창선대교와 같은 교량이 건설되어 연육화된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남해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경관적 특색을 지닌 장소와 주민생활 및 그 변화에 초점을 두어 남해도의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 장소로는 지족해협, 물건리 어부림, 앵강만과 강진만, 상주 해수욕장, 가천 다랭이는 등이다. 이러한 남해도 고유의 장소와 주민생활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와 현지 주민들은 다양한 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본래의 모습들은 하나둘씩 퇴색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어 : 남해도, 지역성, 지족해협, 물건리 어부림, 앵강만과 강진만, 상주 해수욕장, 가천 다랭이는

Abstract : Namhae Island is the 4th largest island in Korea. Since the island is originally isolated by sea, the uniqu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 is relatively well preserved. Because Namhae Island is a large island, it has higher self-sufficiency than other small islands, but it is unfavorable place to settle down because it is mostly mountainous. Namhae Island, which has such regional characteristics, has undergone a lot of changes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s such as Namhae Bridge and Changseon Bridge. This paper focuses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Namhae Island, focusing on the place, the resident's life and the change with unique landscap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seen only in Namhae Island. Representative sites include the Ji-jok Strait, the Mulgun coastal village forest, the Angang Bay and Kangjin Bay, the Sangju sand beach, and the Gachon Darangyi village. In order to preserve these unique places and resident's lives in Namhae Isl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are making efforts in various angles, but their original features are being faded one by one. Key Words : Namhae Island, Regional characteristics, Ji-jok Strait, Mulgun coastal village forest, Angang Bay and Kangjin Bay, Sangju sand beach, Gachon Darangyi village

I. 서론

남해도는 북위 34° 부근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남쪽의 온화한 섬이다. 남해도는 H자 혹은 나비 모양으로 보이는 큰 섬인 남해도와 창선도, 유인도인 조도, 호도, 노도,

그리고 76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섬이다. 남해도는 임야면적이 68%를 차지하여 산이 많은 대표적인 섬인 까닭에, 하천은 짧고 평야는 좁아 전체면적의 약 22% 정도에 불과하다. 남해도의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여 그 길이가 약 302km에 달하며, 근해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연

*이 연구는 2012년도 경상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undoh@gnu.ac.kr)

근해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해도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주하였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삶터이다. 신라 시대 이후 전통 사회에서는 변방의 해읍이었으며, 외부 세력의 침입이 잦은 때를 전후로 읍지의 이동이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배지 중 하나였으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노량 앞바다가 육지와 남해도 사이에 있다.

남해도 주민들은 경지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영세한 농업과 어업으로 삶을 영위해왔다. 남해군의 인구는 45,129명(2016년 12월 기준)이며, 그 중 남자는 21,566명, 여자는 23,563명이다. 190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통계가 남아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적해 보면, 남해군의 인구는 1900년대부터 점점 증가 추세를 보여 1964년에는 137,9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계속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가구 수도 1969년 22,753가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인구는 줄면서도 가구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해군청 홈페이지).

남해도 사람들은 과거에는 노량해협을 통해 육지와 왕래하였으나 1973년 6월 노량해협에 남해대교가 개통되고, 하동군과 직접 육로로 연결됨에 따라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또한 1980년 6월에는 지족해협에 창선교가 개통되어 남해도와 창선도가 연결되고 군내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리고 2003년 4월 남해 창선과 사천시를 잇는 3.4km의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 남해의 새로운 관문이 탄생되었다. 또한 노량리 노량나루는 부산과 여수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했으며, 여수·사천·통영·부산 등지로 항로가 개설되어 쾌속선과 일반여객선이 수시로 다니고 있다. 이들 항로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로이다. 이러한 접근성의 변화는 남해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남해도에서만 존재하는 경관이나 주민생활 모습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남해도 곳곳에 골짜기, 스포츠파크, 각종 레저시설이 들어서고, 가천 다랭이논이나 금산 보리밭 등과 같은 전통경관은 관광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마늘이나 죽방렴 멸치 등의 농수산물도 상품화하였으며, 독일마을, 아메리칸 빌리지, 어촌체험마을, 각종 박물관 등과 같은 새로운 여가 형태를 수용하는 시설 경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남해도의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전

통 경관과 생활 모습을 선정하여 그 원래 모습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해도의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II. 남해도의 지리적 배경

1. 남해도의 자연·지리적 배경

남해도는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섬 내부 산지의 골짜기와 산록, 좁은 해안평야 등 인간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곳곳에 고르게 분포한다. 남해도의 산지에 발달한 곡지의 길이는 짧기 때문에 범람원이 매우 좁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좁은 범람원과 해안평야를 제외하면 온전한 평지는 드문 편이다(그림 1).

남해도의 산줄기는 주로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으로 배열되고, 이에 따라 부차적으로 남-북, 북북동-남남서, 동-서, 북서서-남동동 등 방향의 곡지가 남북 방향의 산줄기를 절단하여 해체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선구조의 공간적 배열은 각 산체들의 지형적 특성에 반영되고, 해안 지역의 지형 형성에 있어서 침식·퇴적 지형의 공간적 변이에 영향을 미친다. 남해도의 산지는 그 고도가 500~700m에 이르며,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고도와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남해도의 기반암은 약 80% 정도가 중생대 쥐라기 말부터 백악기 말에 형성된 경상누층군 퇴적암인 진주층과 함안층, 그리고 유전층군 등으로 구성되고, 불국사화강암이 지배적이다(그림 2). 불국사화강암이 기반암인 지대는 주로 산정부나 능선을 이루고 있는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남해도의 남부지역의 웅봉산~설흘산과 금산~대기봉 일대는 산지 전체를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퇴적암류가 기반암인 지대는 주로 화강암 산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금사면의 경사변환점 아래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러한 산지의 산정부, 능선부, 산록대에는 토르, 암괴원, 암괴류, 테일러스, 선상지 등과 같은 유물지형이 곳곳에 산재하여 분포한다(그림 3).

이러한 암석분포 특색을 반영하여 산지는 금음산, 망운산, 대방산 등은 토산의 모습을, 설흘산, 금산 등은 석산의 경관을 보이고 있다. 해안 지역에도 역시 이러한 암석 분포 특색을 반영하여 산지로부터 해안으로 거력, 자갈, 모래, 미립토에 이르는 다양한 입경의 쇄설물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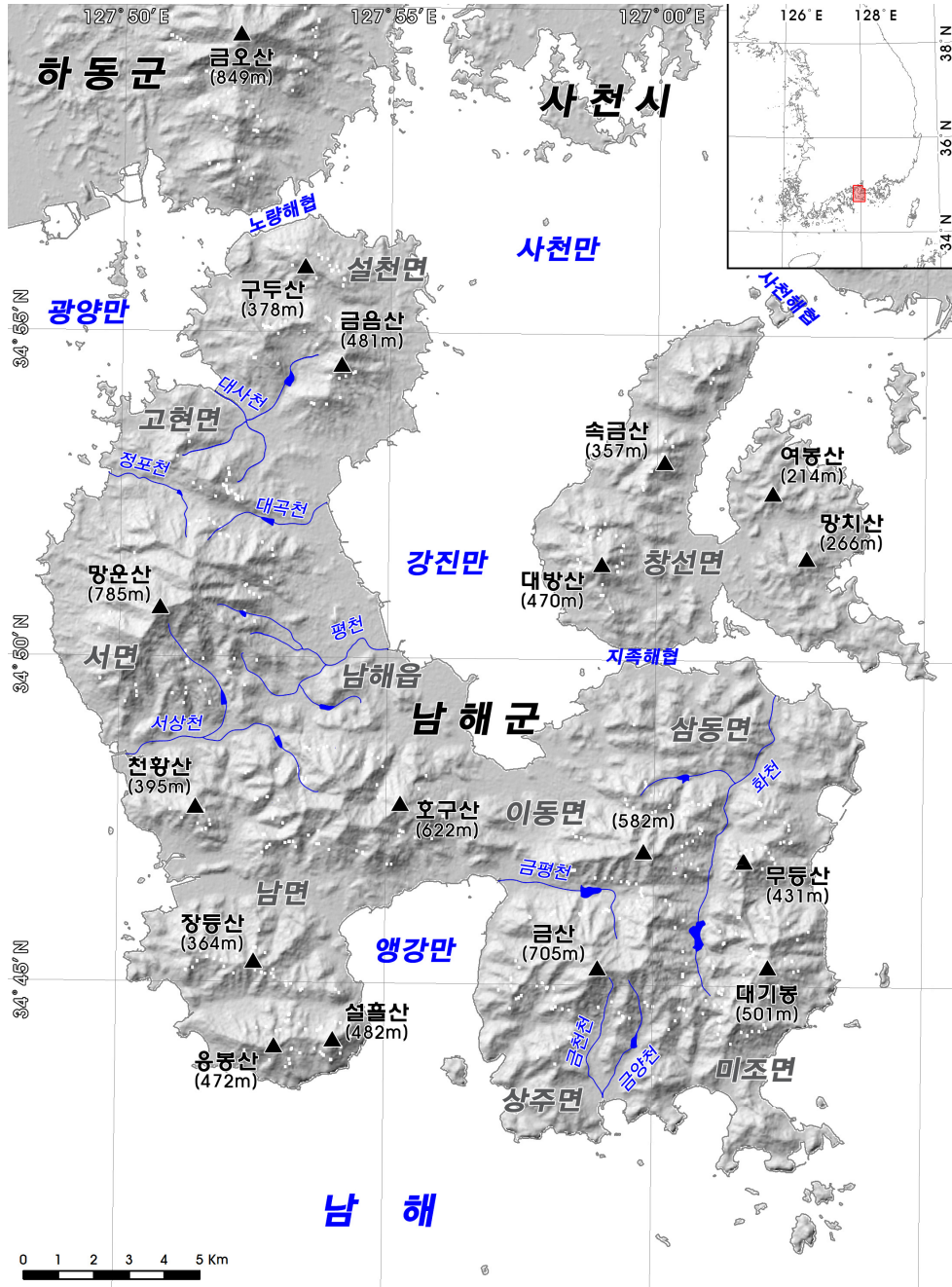


그림 1. 남해도의 주요 산지 및 하천

* ASTER GDEM 자료에 ArcGIS와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필자가 표시.

급되고 있다. 산지에서 공급된 채설물들은 내부 골짜기나 인근 산록대에 넓게 피복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농사가 행해지는 계단식 논이 주요 사면 경관을 이루

고 있다. 또한 해안지역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후산지로부터 공급된 물질들이 퇴적되어 다양한 형태의 해안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류의 영향을 주로 받는 내해인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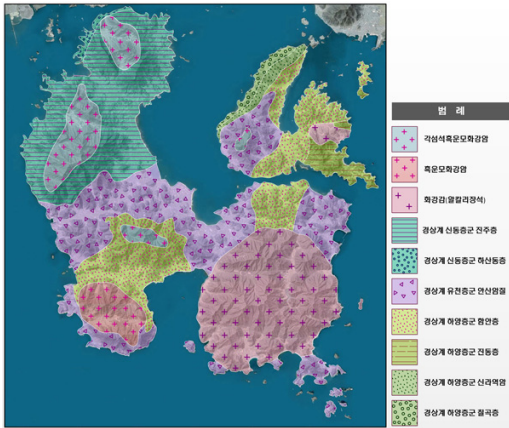


그림 2. 남해도의 암석분포

* 1:250,000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를 필자가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필자가 표시.

진만 일대에는 주로 사질갯벌이나 역질갯벌, 또는 이들이 혼재된 갯벌이 해안 만입부 곳곳에 발달해 있다. 반면에 큰 바다인 대한해협 외해에 면해 있는 해안지역에는 사촌, 상주, 송정 해안과 같은 사빈이나 물건리, 향도, 초전, 천하 해안 등과 같은 몽돌 해안이 포켓비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급물질이 적고 내륙 대하천의 영향이 미약하여 독립적인 물질수지를 보이는 남해안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양재혁, 2007).

남해도는 위도상으로 북위 35° 이남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습윤하고 겨울철에 비교적 온난한 기후 특성을 보인다. 남해도의 연평균 기온은 약 14.0°C로써 비교적 온난한 편이며, 최한월 평균 기온은 약 -2.3°C, 최난월 평균 기온은 약 27°C 정도를 나타낸다(통영기상대 남해기상관측소). 남해도는 우리나라 다우지역의 하나인 남해안 일대에 위치하여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6년간 평균 강수량은 1,698mm로 전국평균 1,100mm보다 높은 편이다(그림 4). 연 강수량 중 약 45.3%가 6~8월에 내린다. 이러한 기후 환경은 상록활엽수가 자라기 적합하여 곱솔, 졸참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상수리, 매죽 등이 식생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후 환경 덕택에 남해도에는 미조 상록활엽수림(제 29호), 물건리 방조어부림(제 150호), 산타나무(제 152호), 갈화느티나무(제 276호), 왕후박나무(제 299호) 등 5가지 천연기념물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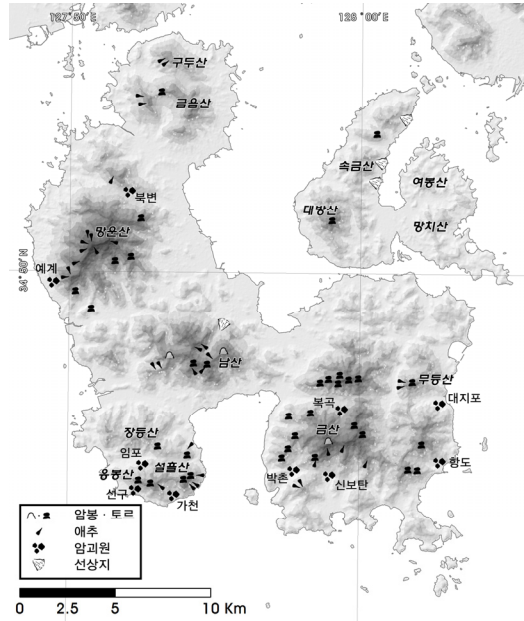


그림 3. 남해도의 주요 산지 지형(애추, 암괴원 등 분포도)

* ASTER GDEM 자료에 ArcGIS와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필자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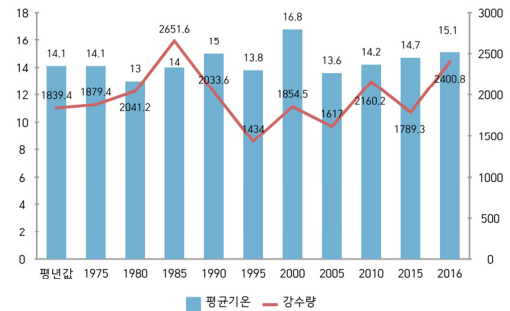


그림 4. 남해도의 기온-강수량 그래프

출처: 기상자료개방포털.

2. 남해도의 역사지리적 배경

남해도의 정주 역사는 곳곳에 지석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해군이 사적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신문왕 7년(687)이다. 신라는 남해도를 전야산군(轉也山郡)이라 칭하고 청주(靑州, 현재 진주) 관할에 두어 태수를 지방장관으로 하여 2개현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그 후 경덕왕 16년(757)에 단행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남



그림 5. 남해 읍치의 이동

- * 최원석(2004a)을 참고하여 작성.
- ** Daum 지도에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필자가 표시.

해현으로 개칭되었고 강주에 속하였다.

고려8대 현종 9년(1018)에는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본 군을 남해현이라 개칭하였고 현령을 두었다. 그 후 고려 말기부터 왜구들이 남해안 일대를 통하여 약탈살상을 자행함에 따라 남해현은 정상행정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31대 공민왕조에는 진주 관내 대야천 부곡(大也川部曲, 현재 하동군 북천면)으로 피신하여 읍치를 옮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태종 4년(1404)에 남해군으로 복귀하였으며, 현재 설천면 비란리 성안마을에 고현성을 축성하였다. 태종 13년(1413)에 행정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남해현은 일시 하동과 병합하여 하남현이 되었다가 하동현이 독립함에 따라 진주의 금양부곡과 합쳐져 해양현이 되었고, 그 후 금양이 진주에 병합됨에 따라 남해현으로 복귀되었다. 세종 21년(1439)에 현재 위치로 읍치를 옮겨 읍성을 다시 쌓았다(그림 5). 고종 32년(1895)에 남해현은 남해군으로 개편되었고, 1906년에는 진주목에 속해있던 창선도가 남해군으로 편입되어 8면으로 되었다.

1973년 이동면의 갈도가 통영군에 편입되었고, 1979년 남해면은 읍으로 승격되어 1읍 7면에 되었으며, 1986년 4월 1일 이동면 상주출장소가 상주면으로, 삼동면 미조출장소가 미조면으로 승격되어 1읍 9면이 되었다(남



그림 6. 남해읍치의 풍수적 입지와 영역

- * 최원석(2004a)을 참고하여 작성.
- ** Daum 지도에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필자가 표시.

해군청 홈페이지).

남해의 광역적인 읍치는 진산(鎭山)인 망운산(785m)을 배후로 삼고, 주산을 중심으로 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 남산(南山)을 포함한다. 남해 읍치를 풍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망운산에서 분기하여 동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읍치 북쪽을 감아 둔 주산과 앞으로 마주한 남산, 그리고 좌우의 산 지맥(支脈)이 이루어 놓은 소규모 분지가 사신사적 형국을 이루고 있다(그림 6). 읍치 공간의 동쪽과 북쪽은 평탄하게 개활되어 있는데 특히 북쪽이 산으로 막혀 있지 못한 지형적 상황은 겨울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보를 통한 경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결한 곳을 숲(柳林)으로 비보하였다(최원석, 2004a).

III. 남해도의 주요 경관과 주민생활 특색 및 그 변화

1. 지족해협과 죽방렴

죽방렴과 석방렴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바다에 순응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어로 행위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행해지는 대표적인 전통적인 재래식 어로활동이다.

오늘날까지 죽방렴을 통하여 어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과 남해군 창선면 사이에 있는 지족해협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과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사이에 있는 삼천포해협 뿐이다. 남해도의 죽방렴은 지족해협에 23곳, 삼천포해협에 21곳만이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에도 몇 개의 죽방렴이 있었으나 최근 철거되었다. 남해도의 죽방렴이 설치된 지족해협과 삼천포해협은 기반암인 경상누층군 퇴적암을 개석하는 동서 방향의 좁은 골짜기에 해당하는 지형이어서 물살이 센 곳에 해당한다.

죽방렴은 어살류의 일종으로서 물살이 빠른 좁은 물목에 조류가 흘러 들어오는 쪽을 향해 참나무 말목을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하게 박아 늘어놓고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나무를 발처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고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흘러 들어온 고기를 가두어 잡아두는 어구이다. 죽방렴이란 명칭도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나무(竹)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발처럼 엮어(簾) 고기를 잡는(防)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무어살”이라고 한다. 지족해협 주민들은 처음부터 죽방렴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죽방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기 하여 행정기관에서 죽방렴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면서부터 지족해협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죽방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족해협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知足里)와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只族里) 사이에 위치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좁고 길게 늘어선 것을 지칭할 때 ‘술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족해협을 ‘손도’라고 부른다.

죽방렴을 설치하기에 좋은 장소로는 조차가 크고 물살이 빠르며 수심이 적당해야 한다. 또한 조류의 방향과 죽방렴의 방향이 일치할수록 유리하며, 고기가 많이 드나드는 어도(魚道)에 위치할수록 좋다. 반면에 수심이 너무 깊으면 말목을 깊이 박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말목이 수면 아래로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죽방렴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 수심이 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물살 세기가 약할 경우에는 발창 안으로 모여든 고기가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 예로 남해대교 아래 노량해협은 유속은 빠르지만 최저 수심이 약 39m에 달할 정도로 깊어 죽방렴 설치에 부적합하다.

지족해협은 이러한 자연적 입지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다. 지족해협은 썰물 때에는 해협의 한가운데라고 하



그림 7.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출처 : 남해군청 홈페이지.

더라도 성인키를 넘지 않을 만큼 수심이 얕은 곳이 있으며 육지와 육지 사이의 폭도 가장 넓은 곳이 약 2,700m이고 가장 좁은 곳이 약 375m이다. 물살의 세기도 사리 때 최고 시속 13~15km의 빠른 유속을 가진다. 더구나 조차도 커서 밀물 때에는 10m 내외가 되는 말목이 1m 남짓만 남고 모두 물속에 잠길 정도로 수심이 깊어지기도 한다. 사리 때에는 말목 전부가 물속에 잠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배에게 죽방렴 설치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말목 끝에 하얀 부표를 매달아 두기도 한다(그림 7).

죽방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장의 어획고가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죽방렴 운영에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까닭은 어장 관리를 위해 어장주의 크고 작은 손길이 꾸준히 요구되며, 물때를 맞춰서 매일 작업장에 나가야 하며, 어획한 고기의 선별 및 분류 작업과 상품화 과정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족해협 마을 주민들은 주로 가족노동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어장주들 간의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 주민들을 일당제로 고용하기도 한다.

한편 말목의 재료로는 소나무나 참나무를 썼다. 심한 해일이나 조류로 인하여 유실되지만 앓는다면 소나무 말목의 수명은 2~3년이 되었고, 참나무 말목의 수명은 10여 년을 넘었다. 참나무 말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6~7년을 지탱한 말목은 다양한 해조류가 부착하거나 바닷물에 부식되어 가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새로운 말목으로 교체해 주었고 교체한 말목으로는 말목과 말목을 가로로 이어주는 띠목으로 이용하였다. 오늘날에

는 철재 원통형이, H빔, 혹은 철길 레일 등의 철재 말목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철재 말목들을 쓰는 것은 참나무보다 더 수명이 오래가고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말목이 넘어가지 않는 한 내구연한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철재 원통이나 H빔을 사용했지만 앞서 수명이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수명이 긴 철길 레일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철재는 1개 말목에 약 20~30여 만원하는 고가여서 시설 보수시 어장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혼용하여 세우는 경우가 많다(조용순, 2005).

그동안 죽방렴은 어장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었고 오랫동안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달된 어법의 등장과 연안의 어족자원 감소, 죽방렴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 죽방렴 어장주들의 노령화, 어업 면허제 실시, 어업 규제와 구조 조정 등으로 죽방렴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남해도의 죽방렴 어획량과 어장의 관리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남해군은 인근지역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하동 화력발전소, 광양제철소, 여천산업공단 등 많은 산업시설이 산재하고 있어서 항시 수질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여름철에는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족해협에 방파제를 건설하고, 해안도로를 건설하거나, 교각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물길과 조류의 세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갯벌이 감소하여 죽방렴 어장의 어획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축을 쌓아 만든 석방렴(石防簾)은 남해군 연안에 분포하던 대표적인 어전류 어구였다. 석방렴(石防簾)은 돌밭, 돌살, 석전(石箭), 석제(石堤)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해안에는 서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밭이 적은 편이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석방렴이 발견되는 곳은 남해군 뿐이다. 우리나라 근대 수산업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한국수산지」(1908)에는 “석방렴은 경상도와 전라도 연안에서 정어리, 고등어, 새우, 전어 그 밖의 작은 잡어를 잡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한 것인데, 만입부 간석지 지반의 경사가 급한 해면을 골라서 돌담을 쌓아 만든다. 돌담은 밀물 때에 수면 아래 1~2자(30~60cm)가 되도록 쌓고, 돌담의 한쪽 밑에 직경 1자 내외의 구멍을 뚫어 통발을 삽입해둔다. 썰물 때에 석방렴 밑바닥의 물이 빠지면, 통발을 끌어올려 통발 속에 들어간 물고기를 잡는다. 통



그림 8. 남면 해우라지 마을의 석방렴

출처 : 2012년 5월 필자 촬영.

발을 설치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남해군 연안에서 석방렴은 설천면 문항 마을을 중심으로 한 강진만 일대, 창선면과 삼동면 사이의 지족해협 일대, 이동면과 남면에 걸쳐 있는 앵강만 일대의 해변에 크고 작은 돌밭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다. 그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되고 있는 석방렴은 설천면 문항리에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거의 훼손되어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최근 남해군청에서 관광객을 위해 이동면 신전리에 석방렴을 축조하였으며, 남면 흥현리 해우라지 마을에는 고기잡이 체험활동을 위한 석방렴을 경상남도과 남해군청의 재정 지원으로 축조하였다(그림 8).

석방렴은 자주 보수해야 운영할 수가 있었다. 특히 태풍이 불 때면 모래와 땔이 입토 쪽으로 몰려들어 물이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삽으로 모래와 땔을 긁어내야 했다. 태풍에 쓸려나간 돌들은 대체로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워서 다시 쌓았다. 남해군 연안의 석방렴은 1959년 사라호 태풍의 영향으로 크게 유실되거나 멸실되어 조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전한다.

원래 남해군 연안의 석방렴에서는 멸치, 꼬시래기, 갈치 등이 많이 잡혔다고 전한다. 석방렴의 어획량은 시기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전한다. 어족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석방렴 어장은 황폐해져서 점차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에는 석방렴을 이용한 어로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석방렴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획량이 너무 적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이전, 2007).

2. 송정리 초전수와 물건 방조어부림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섬에서는 바람이 잦은 편이다. 섬에서는 일상적으로 육지와 바다의 기압차에 따른 해풍과 육풍이 반복적으로 분다. 또한 남해도의 경우, 남해도는 한반도의 남쪽 경계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폭풍이 불어오거나, 여름철에는 태풍이 불어올 때에도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는 곳이다. 예로부터 남해도 주민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의 곳곳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현재에도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조면 송정리 초전수를 비롯하여 물건 방조어부림 등 18곳에 마을숲이 분포한다(그림 9).

초전수(草田畵)는 남해군의 최남단인 미조면에 속하며 미조항으로 가는 길목의 초전마을 동측 해안을 따라 긴 선형의 활엽수림으로서 송정리 초전마을 해안을 따라 긴 선형으로 전형적인 해안 방풍림을 형성하고 있다. 숲 내 중앙에 마을정자가 위치하고 주변으로 넓은 주차장과 부두가 위치한다. 마을 정자를 중심으로 남측 숲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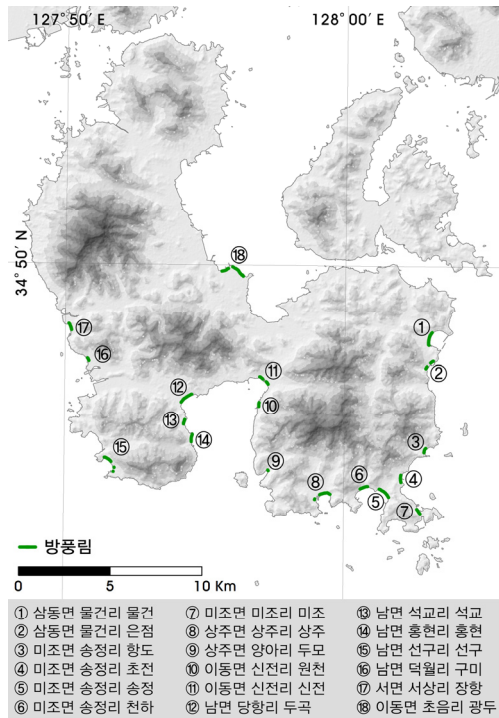


그림 9. 남해도의 마을숲 분포

* ASTER GDEM 자료에 ArcGIS와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필자가 표시.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건물이 많고, 북측은 군에서 관리하여 여름철에 피서객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초전 주민들은 숲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숲 속에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블록으로 된 당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10월 보름날 이곳에 모여 풍어를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는 당산림이기도 하다. 1920~30년대 들어서는 마을 유지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 마을 방조림(防潮林)을 벌채하는 일이 두 차례나 일어났다. 그런데, 이들은 원인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곧 병사하고 가세도 기울었다. 동민들도 가난해져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는 일까지 생겼다. 그 이후 숲을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게 되었다. 동향의 바닷가 평탄지로서 농경지와 마을을 해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앞 바다로 트인 지형적 결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성된 비보숲이면서 방풍림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그늘을 형성하여 바다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림이기도 하다(문화재청, 2008).

한편 물건마을에 들어서면 해안선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방조어부림이 가장 눈에 띈다(그림 10).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해안 몽돌밭을 따라 반월형으로 펼쳐져 있는데 평균 너비 30m, 길이 700m 내외이고 면적은 23,438m²이다. 기존의 군지, 면지, 관광안내서 등 거의 모든 기록물에서 길이를 1.5km로 설명하고 있는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천연기념물 제150호(1962.12.3.)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그림 11). 남해군의 방풍림



그림 10. 물건리 방조어부림 원경

출처 : 2012년 5월 필자 촬영.



그림 11. 물건리 방조어부림 근경

출처 : 2012년 5월 촬영.

이 대부분 소나무인데 반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팽나무, 참느릅나무, 상수리나무, 이팝나무, 보리수, 동백나무, 느티나무, 포구나무, 벚나무 등 활엽수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상층목 2,000여 그루와 하층목 8,000여 그루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숲은 근해에 그늘을 드리워 물고기를 모으기도 하고, 방풍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숲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고 몽돌해안과 인접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 물건방조어부림은 전주이씨 무림군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17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군지, 면지, 관광안내서 등에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해안선 주변이 모두 숲이었는데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해안선과 가까운 숲만 남게 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언은 여러 주민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데 물건마을에 거주하는 조○○ 씨(남, 1938년생)로부터 구체적인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지금 66번지 논이야. 머슴이 일할 때 쟁기가 부러져. 쟁기질 할 때 자주 쟁기가 부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러진 자리를 파 보니까 느티나무뿌리가 나오는 거야. 그때 내가 17살쯤 먹었을 때지. 한 50년 전이니까 60년대 쯤 될거야.”

(김창일·김철호, 2013:54-55)

이는 물건방조어부림 인근의 논이 예전에는 숲이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물건방조어부

림이 누군가에 의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 숲이었는데 점차 경작지화 되면서 현재의 해안가에만 숲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물건방조어부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물건리 방조어부림의 조성에 대한 견해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물건마을 주민들은 물건리 방조어부림이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숲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숲을 보호하게 된 여러 가지 사연이 내려져 온다. 약 100여 년 전 마을사람들이 숲을 벌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후 폭풍우가 이 마을을 들이쳐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로는 숲을 파괴하면 마을이 망한다고 믿어 숲의 나무를 베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200여 년 전 공요전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숲의 나무를 벌채하여 납부를 하자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그 이후로는 숲을 파괴하면 마을에 큰 변고가 난다고 믿어 숲을 잘 보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 약 100여 년 전에는 병술년 대흥년이 있었는데 이 숲의 나무로 초근목피하여 주민들이 기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김창일·김철호, 2013).

일반적으로 해안숲은 해안을 따라 울타리형으로 잘 나타나고 기능상으로는 방풍 기능이 특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농업보다는 어업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어를 기원하는 토착신앙적 기능이 농촌의 다른 숲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남해도의 여러 임수는 예로부터 취락의 바람피해 방지 및 경작지에 대한 조수피해 방지 등의 보안을 위해 조성·금호된 것이다.

3. 강진만과 앵강만

남해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강진만은 외해로 열려있는 만이 아니라 육지에 의해 닫혀 있는 내해에 형성된 만입부이다. 따라서 파랑의 영향보다는 조류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간석지 해안을 이룬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파랑의 영향이 강한 앵강만보다 해식애의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식생으로 덮인 부분도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난다.

간석지의 물질의 기원은 사천만으로 유입된 물질과 남해도 본섬에서 유입된 물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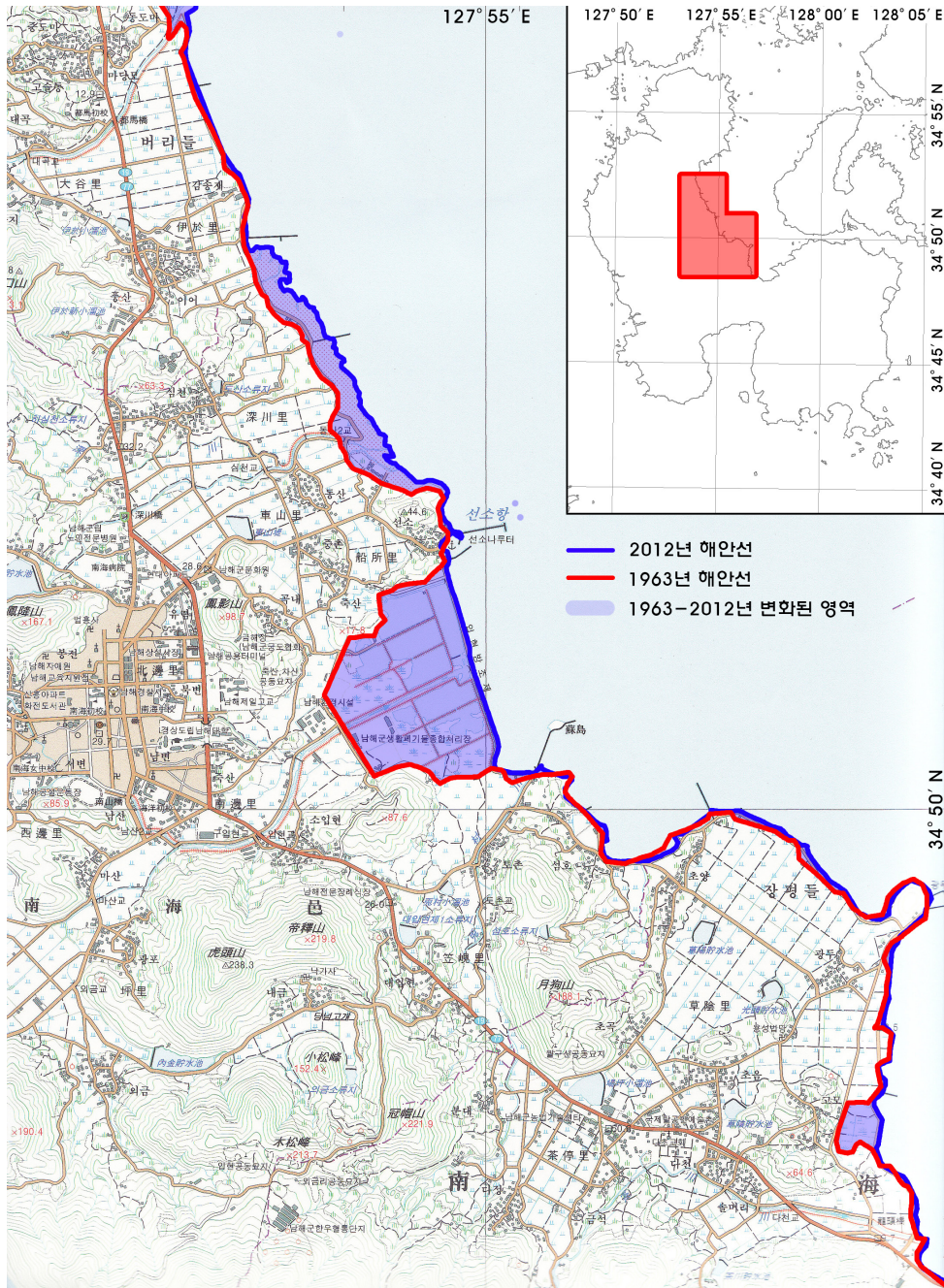


그림 12 간척에 따른 강진만 해안선 변화

* 1:25,000 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에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필자가 표시.

된다. 강진만 주변의 암석 구성을 보면 중앙부 및 서부는 유천층군, 동부는 하양층군으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천만을 통해 유입되는 육지 기원 물질

들도 퇴적암 침식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석지의 전반적인 색깔은 어두운 편이다.

앵강만은 외해로 열려 있어 강진만보다 파랑의 영향

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의 측면부는 파랑의 침식작용을 받아 수직 및 급경사의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헤드랜드(headland)에서 생성된 물질들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앵강만으로 유입·퇴적되어 사빈해안을 이룬다. 앵강만의 기반암은 유천층군과 장식 화강암으로 곳으로부터 모래를 비롯한 풍화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지만 대부분 육지의 하천에서 공급된 물질이라 판단된다. 또한 앵강만에는 역빈 해안도 관찰된다. 이는 앵강만의 동부의 기반암이 유천층군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설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된 암설들이 사면 경사를 따라 중력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앵강만의 곳곳에는 사면이 동물질인 암설들이 존재하며 비교적 사면 경사가 급한 해안에서는 몽돌이 형성되어 덮고 있다.

이와 같이 내해에 위치한 강진만과 외해에 면한 앵강만은 같은 남해도에 있음에도 색다른 지형환경 여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만의 주민들은 예로부터 갯벌을 활용한 어업을 주로 하였으며 일주 해안 간석지는 간척을 하여 농경지로 활용해 오고 있다(그림 12). 반면에 앵강만의 사빈해안 및 일부 몽돌해안은 주로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바다에서는 전복 양식이 행해지고 있다. 앵강만의 남쪽 전면에 위치한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알려지면서 유배문학관이 읍내에 지어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다.

4. 금산과 상주해수욕장

남해 금산(705m)은 영남에서는 합천의 가야산, 방장산(지리산)과 겨루며 중국의 남악에 비견되는 대표적 명산이다. 바다 속의 신비한 명산으로 '소금강산' 혹은 작은 봉래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금산 일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유일한 육지부 산악공원으로 1968년 지정되었다. 금산 산정에는 강화도의 보문사, 양양 낙산사의 흥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도량의 하나인 보리암이 있는데,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예로부터 유명하다. 금산 정상부와 쌍홍문에서 조망하는 남해다도해 경치는 장쾌하고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며, 일출과 일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 바다 조망경관이다(문화재청, 2008).

남해안 일대의 섬들의 암석은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에 속하며, 이 층을 관입한 화강암이 비교적 높은 산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강암 산지들은 대부분 바다와 직접 맞닿아 가파른 해식애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금산은 바다와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산지와 곡지가 어우러진 유역을 이루어 해수와 만난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화강암의 절리체계와 심층풍화 속성이 반영되어 산지의 정상부에는 토르와 같은 암괴 지형이 발달하지만, 곡지로부터는 해안 일대에 많은 풍화물질을 공급하여 사빈해안이 형성된다(기근도, 2017).

상주해수욕장은 금산으로부터 약 4km 떨어져 있으며, 금산을 중심으로 금산(705m)-358.6고지-천황산(287m)-신불암(220m) 산줄기와 금산-666.4고지-혜은산(166m) 산줄기로 둘러싸인 유역의 해안에 해당한다. 상주해수욕장은 북쪽 내륙에 자리 잡은 금산은 모래공급지로서, 상주 해수욕장의 퇴적물은 금산에서 발원하는 금전천과 금양천에 의해 운반된다(그림 13). 상주해수욕장은 길이 약 2km, 평균너비 약 120m에 달하는 초승달 모양의 사빈해안이며, 사빈의 단면 경사는 약 3~5°로서 매우 완만하다. 상주 해수욕장의 남쪽 바다에는 삼서도, 목도 등이 만 입을 막고 있어 외해로부터 밀려오는 파랑이 차단되는 전형적인 포켓비치(pocket beach)를 이루고 있다(그림 14).

이러한 상주해수욕장의 사빈해안에 지형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1983~1984년에 걸쳐 한려해상국립공원 개발이 시작되면서 인위적 영향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당시 건설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환으로 경남 제1의 해안 휴양지로 상주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 하천의 개수, 야영장 설치를 위한 도류제 건설, 도로와 후반부를 보호하기 위한 호안 축조 그리고 요트항의 건설과 서비스 시설의 중점 개선 확충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하천 유로의 양안을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하천의 유속이 예전보다 더 빨라지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해수욕장 서쪽 도류제 전면과 금전리 마을 앞에 자갈이 퇴적되었으며, 해수욕장 서쪽 사빈이 거의 유실되었다는 점이다. 해수욕장 서쪽 사빈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은 시기별 항공사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은 도류제의 설치와 하천 개수로 유로가 변경되어 기존의 남동 방향으로 유입되던 하천 퇴적물들이 남쪽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표사



그림 13. 남해 금산과 상주해수욕장



그림 14. 상주 해수욕장
출처 : 네이버 지도(위성).

이동도 남쪽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퇴적물 공급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수욕장 서쪽의 금전리 서편 선착장의 확장과 패류 수산연구소 방파제 확장으로 헤드랜드(headland)로부터 퇴적물 공급도 줄어들면서 해수욕장 서쪽 일대 사빈 유실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빈 유실로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갈 노출이 금전 마을 앞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87년에는 앞서 언급한 자갈 퇴적과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돌제가 축조되었다. 이 돌제의 축조로 미미하게나마 도류제 전면에 퇴적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갈에 의한 굴식 피해는 경감되었다. 그러나 돌제의 효과는 아주 미약해서 현재 도류제 전면부와 금전리 앞에 여전히 자갈이 많이 퇴적되었다. 현재의 돌제는 1987년에 만들어진 돌제보다 더 크게 재건설되었는데, 이는 2003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이 유실되어 다시 만든 것이다(안경모, 1993; 2001).

5. 가천 다랭이마을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무렵 인간과 결부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가치



그림 15. 가천 다랭이마을 일대의 지형

출처 : 네이버 지도.

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가천 다랭이논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농경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자 한 인간문화의 대표적 산물인 계단식 논에 속한다. 계단식 논은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남해 가천 다랭이논은 지리산 일대의 계단식 논이나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계단식 논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가천 다랭이논이 지니는 차별성은 육지가 아닌 섬의 끝자락 급경사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환경 및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타 지역과는 구별된다. 가천 다랭이논은 뛰어난 해안 경관과 함께 전통농업경관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가치 높은 명승지라고 할 수 있다.

가천마을의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해안은 가파른 암벽의 해식애로 이루어져 있어 선착장이 들어설 장소가 마땅치 않은 지형 여건이다(그림 15). 이 때문에 가천마을 주민들은 해안에 살면서도 어업은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설화산과 웅봉산 사이 골짜기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100여 층의 다랭이논을 일구어 마을을 형성하였다(그림 16). 가천마을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산비탈의 다랭이논에 의존하여 재래식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가천마을 전체의 경지면적은 42ha이며, 이를 가구당 경지면적으로 환산하면 0.72ha에 불과하다(2006년 기준 전국 평균 1.34ha).

‘다랭이’란 규모가 작은 밭떼기를 지칭하는 단위이며, 논은 경우 ‘배미’라 한다. 이견 어디까지나 사전적 의미



그림 16. 가천 다랭이논

출처 : 남해군청 홈페이지.

이고,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다랭이 마을의 다랭이논은 작은 계단식 논을 말한다(그림 12). 얼마나 그 크기가 작기에 샷갓배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옛날에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논을 세어보니 한 배미가 모자라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샷갓을 들었더니 그 밑에 논 한 배미가 있었다는 일화가 그것이다. 논을 한 뼉이라도 더 넓히려고 산비탈을 깎아 석축을 곧추 세워 논을 만들었던 다랭이 마을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집념을 엿볼 수 있다.

가천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어 방문객이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마을 기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이 경관적 가치가 특별하고 전통적인 벼농사가 유지되고 있는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은 보존 및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2005년 1월 3일 국가지정 명승 제 15호로 지정되었다. 명승지로 지정된 다랭이논은 총 면적 195,428m²로 소유는 크게 마을주민, 외부인, 국공유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다랭이논 휴경 증가 원인은 주민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외부인 소유의 논 경작 중단도 일부를 차지한다.

가천마을의 실제 방문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부상의 인구는 172명이었으나, 실제 거주민은 118명이었다(2006년 12월 기준). 실제 거주민의 남녀 비율은 여성이 60%를 차지하며 연령대별로 고령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은 생산연령층 인구가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가천마을 전체 58호 중 40호가 농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19가구에 불과하였다. 다랭이논에서 재배하는 주요 작물은 여름철에는 벼, 겨울철에는 마늘이다.

다랭이논의 토양은 그 두께가 30cm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편이다. 대부분의 토양은 물빠짐이 좋은 식양질 논토양이며, 자갈 함량이 10~20% 정도이다. 하지만 모래함량이 적고 미립질의 점토나 미사 함량이 높은 토양이기 때문에 밭으로 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토양 내부에는 산정상부로부터 중력이동에 의해 섞여 내려오는 거력이 포함되어 있어 계단식 축대를 쌓는 석재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농기계 작업에는 매우 불리하다(남해군, 2007).

III. 결론

남해도는 면적 357.66km²로서 매우 큰 섬이며, 변방의 해읍으로서 오랜 정주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남해대교와 창선대교 등의 연육교가 건설되고, 섬 외곽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와 섬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남해-여수 간에는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성의 변화는 남해도가 지니고 있던 본래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급속한 경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스포츠파크, 골프장, 펜션 등의 레저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되었고, 마늘이나 죽방렴 멸치와 같은 남해 농수산 특산물은 상품화되었다. 또한 금산 보리암, 상주 사빈해안, 가천 다랭이논 등은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었고, 독일마을, 아메리칸빌리지, 박물관, 어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관도 출현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해도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노령화하고 있어 미래의 변화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해도의 지역적 특색을 대표하는 전통 경관과 주민생활 모습을 선별하여 원래 경관의 모습과 그 변화에 초점을 두어 지역성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관으로는 지족해협, 물건리 방조어부림, 앵강만과 강진만, 상주 해수욕장, 가천 다랭이논 등이다.

지족해협은 거센 물살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양식업에는 불리하지만, 죽방렴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재래식 어업활동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오늘날까지 죽방렴을 통하여 어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여 왔으며 그 원형이 완전하게 보전되고 있는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한 곳은 경상

남도 남해군 삼동면과 남해군 창선면 사이에 있는 지족해협 일명 손도라고 불리는 곳과 다른 한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과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사이에 있는 삼천포해협이다. 죽방렴에서 어획되는 대표적인 어종은 멸치인데, 그 희소성과 품질 때문에 매우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고 있다.

초전수는 남해 읍내로부터 동남방으로 약 20km 떨어진 남해도의 최남단 미조항에서 서북 방향으로 2km 떨어진 초전 취락 앞 해변에 위치한다. 초전수는 그 규모가 연장 600m, 폭 10m 내외에 달하며, 물가에 인접하여 모래와 자갈로 쌓은 높이 1m 내외의 둑 배후에 약 30호의 민가와 30정보 남짓한 전답을 곁에 두고 있으며 동쪽 전면은 대한해협을 향한다. 초전수는 수령 20년부터 30년 정도의 다양한 수종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물건수는 남해 읍내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6km에 이르는, 즉 남해도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며 포켓비치의 만입부 해안에 남북에 걸치는 연장 900m, 면적 1.41ha의 해변 평탄지에 남아있는 마을숲이다. 이러한 남해도 해안의 마을숲은 대부분 대한해협이라는 큰 바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을 맞이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남해도의 여러 임수는 예로부터 취락의 바람피해 방지 및 경작지에 대한 조수피해 방지 등의 보안을 위해 조성된 것이다.

앵강만은 노도에 가려져 있지만 그 밖으로는 대한해협의 큰 바다에 면해 있다. 반면에 강진만은 좁은 수로인 노랑해협을 지나 지족해협 등으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내해에 위치한다. 이러한 위치 특성의 차이는 해안 지형의 차이를 가져와 강진만에는 대체로 갯벌이 발달하고, 앵강만에는 모래해안, 몽돌해안, 해식애 등이 곳곳에 발달해 있다. 이에 따라 강진만 해안에는 간척지가 조성되었고, 양식업이 발달하고 있다. 반면에 앵강만에는 사빈해안을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고 그 주위에는 펜션과 같은 많은 레저 시설이 들어섰으며,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해저암반을 활용한 전복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다.

남해의 경치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닌 곳은 금산 보리암이며, 금산 정상부에서 조망하는 다도해와 바다의 모습은 단연 빼어나다. 금산은 기반암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 풍화물들이 해안으로 침식·운반되어 쌓인 곳이 상주해수욕장이다. 남해안에는 대체로 사빈해안이 드문 편인데 상주해수욕장의 모래해안은 금산이

라는 화강암 산체와 관련하여 발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천혜의 공간에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해안도로 건설, 수중 돌제 건설 등의 인간 간섭에 의해 경관 훼손이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도는 우리나라의 섬 중에서 산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평지가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이 때문에 농경이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여 급경사 해안 절벽을 개간하여 오랫동안 논농사를 해오던 곳이 가천 다랭이 마을이다. 이 마을은 다랭이논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마을의 농촌경관을 자원으로 관광마을 만들기에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령화, 노동력 부족, 환금작물 재배 등의 영향으로 논농사를 포기한 곳에서는 논흙에 다량 포함된 점토성분이 수축하여 축대가 무너져서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기근도, 2017, “위치 지식의 개념화를 위한 사례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24(3), 133-147.
- 김유정, 2007, “상주 해수욕장 해변 지형 변화,”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일·김철호, 2013, 「남해의 보석 물건마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김학범·장동수, 1994, 「마을숲」, 서울: 열화당.
- 남해군, 2007, 「가천 다랭이논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
- 남해문화원, 2009, 「남해군지」(증보판). 창원: 남해문화원.
- 농상공부수산물국 편, 1908, 「한국수산지」, 경성: 일한인쇄.
- 문화재청, 2008,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 안경모, 1993, “상주 해수욕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해빈류 해석,”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모, 2001, “해빈변형 모델을 적용한 상주해빈의 지형 변동에 관한 정성적 분석,”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재혁, 2007, “한반도 남해안의 해안지형 특색 및 발달과정,”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전, 2007, “남해군 연안에 설치된 고정 어구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학회지, 19(3), 42-56.
-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역주, 2007, 「조선의 임수」, 서울: 지오북.
- 조용순, 2005,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의 죽방렴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원석, 2004a, “경상도 읍치 경관의 역사지리적 복원에 관한 연구: 남해읍을 사례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16(3), 19-44.
- 최원석, 2004b, 「한국의 풍수와 비보」, 서울: 민속원.
- 황주일, 2008, “남해군 물건방조어부림의 현황·식생구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지형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50,000 지형도」.
-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cmmn/main.do>
- 남해군청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 ASTER GDEM, <https://asterweb.jpl.nasa.gov/gdem-wist.asp>
- Daum 지도, <http://map.daum.net>

교신 : 기근도,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keundoh@gnu.ac.kr)

Correspondence : Keun Doh Kee, 52828,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keundoh@gnu.ac.kr)

투 고 일: 2017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2017년 10월 27일
투고확정일: 2017년 12월 1일

